

한국 고지도(古地圖)를 모티브로 한 의상디자인 연구

오나령* · 양취경

이화여자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졸업* · 성신여자대학교 의류학과 교수

오늘날 세계 각국은 문화와 생활이 범세계적으로 일원화된 한 사조의 지배 현상에서 벗어나려고 하고 있으며 이미 '세계화, 개방화'라는 단어가 진부해지고 독창적인 문화나 전통을 재해석하여 현대적으로 발전 시키려는 노력이 시대적으로 부각되고 있다.

현대에 있어서 전통이란 민족적 동질성과 주체성을 획득해 주는 구실도 하지만 우리 민족의 문화적 역량을 세계적으로 드러내는 구실도 한다. 전통에 대한 기억과 이것이 현재에도 가능하다는 판단과 그리고 이를 되살리려는 의욕이 민족 대다수의 공감 아래서 이루어진다면 과거의 전통은 현재의 전통으로 되살아나 전통문화의 주체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국제사회에서 한국적 디자인을 세계 속에 뚜렷하게 인식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한국적 디자인의 가능성에 대한 모색은 문화 주체성의 정립에 있어 그 의미와 가치가 큰 일일 뿐만 아니라 자기 정체성의 확립이라는 측면에서도 중요성을 갖는다.

본 연구는 인간의 자연과 세계에 대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고지도를 디자인에 도입·전개하여 과거 어느 시대에 머물고 있는 가치가 아니라 전통성과 시대감각에 부응하는 국제성을 갖춘 현대의 한국적 패션디자인 개발의 가능성을 목적으로 하였다.

고지도가 현대성을 갖고 패션디자인에서 응용될 수 있도록 고지도의 발달과정과 특징에서 보여지는 자료들을 바탕으로 고지도가 보여주는 한국적 이미지의 응용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지도이론은 중국에서 먼저 나타났고 우리가 그 영향을 받았으나 자연환경은 어느 민족과는 다른 고유한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즉, 삶의 터이며 생존의 터인 풍토에서 자생적인 사상과 철학이 생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고지도에서 한국적 이미지를 찾을 수 있었다.

지도에는 땅의 측량과 관계되는 과학의 영역이 있고 땅을 생명체로 인식해 온 우리 조상들의 독특한 지리관, 우주관이 있으며 땅을 채색 그림으로 묘사한 화원들의 예술이 담겨 있다. 이렇듯 지도는 국토의 자연형세와 그 속에 담긴 유형적 문화재를 총체적으로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회화기법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각자료로서의 가치가 매우 높다. 조상의 세계관과 우주관이 있는 지도에서 보여지는 자연의 모습에서도 자연에 순응하려는 정서와 미의식이 담겨 있기 때문에 한국적 이미지를 볼 수 있었다. 이렇듯 지형과 토양 등의 풍토를 담고 있고 자연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보여주는 고지도를 통해 고유의 가치를 가진 디자인을 세계화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고지도는 환경친화적인 특성이 강조되고 있는 현대에 새로운 디자인의 패러다임으로 내놓을 수 있었다.

고지도에서 보여지는 한국적 이미지를 찾기 위하여 지도에서 보여지는 자료에 근거한 지리적 지식뿐 아니라 그 속에 담겨 있는 사상을 살펴보기 위해 현존하는 고지도와 풍수사상을 등을 문헌을 통해 살펴보았다. 고지도의 발달과정과 유형 속에 담긴 한국적 이미지를 강조시키기 위해 실물 의상에서 다양한 기법을 통해 지도를 표현하였다. 각각 다른 네 가지의 지도를 모티브로 하여 각 지도 당 2개의 작품을 다양한 소재와 기법을 활용하여 현대적인 실루엣과 실용성을 지닌 의상으로 전개하였다. 각 지도 당 칼라는 blue, brown, khaki, black을 주조색으로 사용하여 오간자, 노방, 옥스퍼드지 느낌의 폴리에스터, 가죽, 니트, 펠트, 청, 나일론과 폴리에스터의 합성섬유, 폴리우레탄 가공을 한 실크, 면벨로아 등의 소재를 잉크젯 프린팅, 자수, 핸드 프린팅, 번 아웃 등의 기법으로 표현하였다. 또한, 다양한 표현 방법을 위하여 비드, 징 등으로 변화를 주었다.